

지역 소식 통

부안군, 2025년 을지연습
18~21일 4일간 실시

부안군이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지역 안보와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전시,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임무수행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훈련이다. 올해는 민·관·군·경·소방 협력을 강화해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기관별 역할과 상황별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훈련은 18일 을지 2중사태 선포와 함께 군 전사종합상황실 개소 등 전시 전환 절차를 실시한다. 또한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 △전시작전 편성 및 기관 소산·이동 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 △공습 대비 주민대피 △긴급차량 길터주기 △대테러 대응 실재훈련 등 다양한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9일까지 농림
수산발전기금 8차 접수

정읍시가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농림수산발전기금' 8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축·목·농·수산물 유통·가공업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귀농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로, 연리 2%의 융자금에 제공된다. 시는 매년 1억원의 시비를 출연해 농업인에게 연리 1%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특히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영자금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되며, 시설자금과 경영희생자금은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는 농산물 가공설비사업, 산지 수매·저장사업, 경영안정사업 등이 포함된다. 차금별 지원 한도는 운영자금과 경영희생자금의 경우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코워킹 스페이스', 바이오창업기업 거점

정읍시, 창업·보육 지원 공유사무실 7개 기업 입주... 기업 간 상생 협력 활발

정읍시가 신정동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조성한 '코워킹 스페이스'가 바이오 창업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6월 문을 연 공유사무실에는 현재 7개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바이오 의약품, 유전자·세포·항암·면역치료제, AI 헬스케어 솔루션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119㎡ 규모의 개방형 사무공간과 회의실, 네트워킹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독립 사무실 마

련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와 연구 공간을 제공해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시는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회계, 특허 등 경영 전반을 컨설팅하는 기업과 투자·펀드 운용 등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2개의 기업체를 함께 유치했다. 이를 통해 코워킹 스페이스 내에 상호 보완적인 기업 생태계를 형성, 첨단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6월 간담회를 열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사업 안내와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화수 시장은 "코워킹 스페이스는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라 바이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이자 정읍형 바이오 클러스터의 출발점"이라며 "창업부터 정착까지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정읍을 바이오 산업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광복절 맞아 고창 출신 독립유공자 4명 서훈 확정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사업' 성과... 오흥탁 · 관길수 · 박부길 · 이은숙 선생

고창군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4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훈이 확정된 인물은 △오흥탁(대통령표창, 학생운동) △관길수(대통령표창, 학생운동) △박부길(대통령표창, 학생운동) △이은숙(애족장, 국내항일)으로, 모두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고창의 자랑스러운 인물들이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오흥탁, 관길수, 박부길 선생은 학창 시절 독립정신을

고취하며 항일 학생운동을 주도했고, 애족장을 받은 이은숙 선생은 국내에서 항일투쟁에 앞장서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서훈은 고창군이 지난해 추진한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의 성과로, 군은 순수 군비를 투입해 용역을 실시하고 각종 사료와 기록을 면밀히 조사해 103명의 서훈 신청서를 작성·제출했다.

특히 심덕섭 고창군수가 직접 국가보훈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 고창의 독립운동가들이 국가로부터 공훈을 인정받게 된 것은 군민 모두가 함께 기뻐할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올해 106주년 3.1절을 계기로 고창고등보통학교 출신 등 7명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확정된 데 이어 제80주년 광복절에는 4명의 서훈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전체 독립유공자가 113명으로 늘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농협, 농협창립 64주년 기념 '총화상' 수상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은 최근 농협 창립 제64주년 기념일에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실시한 정기표창에서 농협 최고경영의 상인 '총화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협 최고경영의 상인 총화상은 전국 1,111개 농협을 대상으로 임직원 상호소통과 인화대결, 복무기강, 사회공헌활동, 사회봉사, 농정활동, 사업추진 등을 엄격하게 평가해 조합원과 고객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모범이 되는 사무소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부안농협은 조합원 유대관계 강화 및 계통 농협 간 하나 되는 농협 실현 등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실익 증대를 위한 농산물 수출 및 영농자재 지원으로 영농비를 절감하



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했다는 것, 이에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에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아 금번 수상을 했다. 2006년도에 이어 2번째 수상이다.

김원철 조합장은 "농협에서 받을 수 있는 총화상은 최고의 영예로운 상으로 2006년에 이어 2번째로 수상을 했

다는 것은 조합원과 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농협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조합원이 함께 노력하여 전국 최고의 농협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기려

고창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고창군이 지난 15일 오전 10시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동리국악당에서 경축식을 개최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경축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단체장,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는 대통령 표창 전수, 군수 표창 수여, 군수 경축사, 독립유공자 유족 대표 인사발령 순으로 진행되었다.

고(故) 오흥탁 의사에게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으며, 고인의 애국심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

간이 마련되었다.

또한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의 발굴 및 기록 정리에 기여한 공로로, 애국지사 신종주 의사의 손자 신형범 씨에게는 고창군수 표창이 수여됐다.

경축식에 이어, 참석자들은 애국지사 고순진·고혜진 선생 추모비를 찾아 헌화하며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다시금 기렸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 4월부터 읍·면·동 도로변에는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113인의 이름과 업적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해 희생정신을 기리고, 지역 주요 노선에는 태극기를 게양, 군민들의 자발적인 애국 참여를 유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독립유공자 후손 위문, 명패 달아드리기

고창군, 제80주년 광복절 맞아 후손 방문 따뜻한 위로 · 감사 전례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성내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유영숙 씨의 가정을 방문해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영숙 씨의 조부 유상학 지사는 1919년 태극기를 대열의 선두에 세우고 3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 만세를 외치며 마을을 누비는 시위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제 헌병에게 체

포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렀으며, 1992년에 그의 공훈을 기리어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이날 심덕섭 군수는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정성스럽게 달아드리며, 사전에 세심한 준비한 마음을 담아 존경과 예우를 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새마을회, 광복 80주년 기념 캠페인 전개

정읍시 새마을회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 읍·면·동을 돌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애국의 물결을 일으켰다.

지난 14일 북면 원화해마을과 원한교마을에서 열린 이번 캠페인은 국기 게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심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화수 시장과 새마을회 회원 50여 명이 함께하며 광복의 뜻을 공유했다.

정읍 새마을회는 지난 11일 광복절을 앞두고 원활한 국기 게양을 위해 각 가정에 국기꽃이를 직접 설치했다.

이어 행사 당일에는 180여 개의 태극기를 가가호호 전달하고 계양을 도왔다. 주민들에게는 태극기 게양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며 나라사랑 실천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캠페인의 열기는 북면을 넘어 전역으로 퍼졌다. 12일에는 입암면 왕십마을과 선암마을을 100여 세대를, 13일에는 상교동 구계마을을 50여 세대를 찾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이어갔다. 사흘간 총 330여 세대에 태극기를 보급하며 마을 곳곳에 태극 물결을 더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